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급

대학 신입생에게 1인당 200만원 지원… 21일까지 신청 접수

순창군이 새 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들에게 1인당 200만원의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은 순창군이 (재)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직접 사업비를 출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과 학생들의 생활비 마련에 대한 걱정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과 보호자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다.

특히, 군는 지난해부터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창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후 특성화고 등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진학 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공식 웹사이트나 순창군옥천장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자녀들의 대학 입학시기에 소요되는 등록금과 교재비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순창군 대학생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2023년부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다.

초·중·고를 순창에서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연간 최대 400만 원, 4년간 총 1,600만 원(진학 축하금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생활 지원금은 오는 5월 중 신청 받을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토마토 농가 소득창출 탄력

남원시,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공모 '운봉농협APC' 선정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 공모에서 운봉농협APC가 선정되며 방울 토마토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봉농협은 총사업비 1억1천7백만원(도비 41, 시비 18, 자부담 58) 규모로 방울토마토 상품화에 필요한 방울토마토 선별기를 설치하게 된다.

이번 평가는 운영 주체의 경영능력, 규모화·조직화 계획, 부지·건축 및 시설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평가로 운봉농협은 평가대상 2개소 중 1위로 운봉농협이 선정되었다.

운봉농협은 남원시 고랭지 및 준고랭지역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사과, 포도, 상추 등 다양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주 취급 품목이 파프리카로 남원시 생산 파프리카 전량을 공동선별 취급하고 있으나, 최근 파프리카에서 방울토마토로 품목 변경을 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울토마토 생산량 증가로 전체물량 선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용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선정으로 운봉농협의 APC시설이 보완되면 방울토마토 공동선별 시간 단축으로 인한 품질 향상 및 균일한 선별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방울토마토 물량 확대와 소포장 물량 공급 확대로 대형거래처 납품 수요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남원시는 선별비용 감축으로 인한 원가 절감으로 거래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 컨설팅 참여 업소 모집

남원시, 선착순 10개소

남원시가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3월 10일부터 컨설팅에 참여할 업소 10개소를 선착순 모집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남원은 지금까지 매우 우수 50개소, 우수 4개소 총 54개소가 위생 등급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이다.

이번 '위생 등급제 컨설팅'은 복잡한 준비 과정으로 신청을 망설였던 음식점을 돕기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가 업소를 방문해 신청부터 지정까지 업소별 특성에 맞춰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위생 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에는 △지정기간 내 출입·검사 면제 △시홈페이지 및 배달앱·네이버 등을 통한 홍보 △지정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 △청소·소독 용역비 지원(연 1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hi1018i@korea.kr)로 제출하거나, 남원시 보건소 보건지원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남원시 보건지원과 최민자 과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위생 등급 지정률을 높여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가 지난 7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임실군,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안보의식 함양 ·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 위한 점검 나서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의장 심 민 군수)가 지난 7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2025년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위기상황과 국지 도발에 대비해 민·관·군·경·소방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임실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군부대, 유관기관·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7733부대 2대대의 지난해 주요성과 및 올해 주요 훈련과 기관별 협조 사항과 홍보 사항 등을 다뤘다.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안보의식 함양과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위기 상황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역할과 임무를 점검했다.

심 민 군수는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민·관·군·경·소방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여 총력 대비 태세를 갖추고, 협력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임실농기센터, 4-H연합회 현장 견학 역량 강화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4-H연합회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남원·통영·거제시 일원에서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수농장 및 농업기관 견학, 체험활동, 문화탐방 등 다양한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교육은 남원시 금지면에서 시설 복숭아 농장을 운영 중인 입동농장을 방문해 스마트팜 시설, 시설 복숭아 재배 기술 요령과 경영 노하우를 듣고, 농업 현장을 둘러보는 등 농장을 경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또한,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물(올리브, 애플망고, 레몬 등)을 육성하고 있는 거제시농업개발원 실증시험 포장을 방문하여 아열대과수 재배 현황 및 재배 기술을 익히는 등 다양한 학습을 했다.

아울러, 희귀한 꽃과 아열대 식물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체험농장으로 운영하는 통영시의 통영동백커피식물원을 견학하여 희귀식물을 감상하는 오감 체험 등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임실군4-H연합회 오정근 회장은 "이번 현장 교육으로 회원들이 아열대과수 도입을 생각해 보고, 시설 재배 기술, 경영 방법, 체험활동 등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4-H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장취균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임실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향교, 춘기 석전대제 봉행

공기 2576년(서기 2025년) 순창향교 춘기 석전대제가 지난 9일 순창향교(전교 유양희) 대성전에서 유림과 군민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석전대제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초헌관을,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아헌관을, 남상길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종헌관을 각각 맡아 제례시 술잔을 올리는 의식인 헌작을 올렸다.

순창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오성(五聖)과 십철(十哲), 송나라 육현(六賢), 그리고 우리나라 동국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석전대제는 이들을 기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전통 제례다.

유양희 전교는 "순창군에서 지속적으로 향교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신 덕분에 올해도 예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우리의 소중한 유교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시는 향교 유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러한 전통문화가 미래 세대에게도 의미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우리 아이 119 구급서비스 적극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임산부와 우리 아이 119구급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사전 가입을 통해 환자 정보를 119 종합상황실에 등록하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출동 대원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우리 아이 119구급서비스의 이용 연령이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까지 확대, 이를 통해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환에 대해 더욱 폭넓고 전문적인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임산부 및 우리 아이 119구급서비스는 가까운 소방서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19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